

불안한 주체의 시선과 글쓰기*

: 1930년대 남성작가의 아내표제소설 읽기

이상진**

차례

1. 문제제기 : 근대소설 속의 조역, 아내
2. 책임의 회피, 열등한 타자의 일탈
 - 2.1. 그들의 윤리, 우처(愚妻)와 우부(愚夫)의 궁합
 - 2.2. 보복의 글쓰기, 출분의 환상과 타락
3. 비난의 전가(轉嫁), 나쁜 동반자의 역할
 - 3.1. 모독과 변절의 대리자, 악처
 - 3.2. 자기고발 전략과 위협한 제2부인
4. 관계의 성찰, 자각과 실천의 기대
5. 해석의 사각지대, 아내의 자리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30년대 남성작가가 쓴 아내표제 소설에 나타난 윤리적 태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작가로서 남성주체는 당시 여성(아내) 현실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와 식민지 현실에서 근대지식인으로서 무력한 남성성과 주체의 불안이 여성(아내) 이미지 재현과 어떤 상관성을 보이는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김유정은 「안해」에서 우부와 우처의 궁합을 희화화시켜 그림으로써, 가부장의 폭압을 폭로하고 회피하는 전략을 보였고, 김동인은 「무능자의 아내」에서 무능한 남편의 실책을 아내의 충동적 가출에 의한 타락과 불

* 이 논문은 2015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행이라는 결과로 은폐하고 있다. 이광수와 이기영의 모델소설, 「혁명가의 아내」와 「변절자의 아내」에서는 아내를 이념논쟁의 대리인이자 변절과 타락의 원흉인 악처로 그렸다. 김남천은 전향소설인 「처를 때리고」, 「이런 안해」에서 아내를 자기혐오에 빠진 위축된 남편들의 가상의 적대자이자 위험한 제2부인으로 그림으로써 비난을 전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주체적이고 이성적인 가정 관리자를 등장시킨 안석영의 「안해」나 자립적인 노동자로서 남편과의 계급적 대립을 넘어 주체적인 여성을 형상화한 채만식의 희곡 「감독의 아내」는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남성지식인의 글쓰기에서 아내는 주로 근대지식인의 위협하고 나쁜 동반자이거나 우둔하고 일탈적인 타자로 재현되었다. 또한 불안한 남성주체의 시선에 의해 왜곡되고 삭제된 채 그려졌으며, 현실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자기방어 전략의 희생물로서 해석상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어 : 아내, 남편, 아내포제소설, 남성성,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신여성, 출분, 제2부인, 전향소설, 모델소설

1. 문제제기 : 근대소설 속의 조역, 아내

근대 초기 서사에서 지식인 남성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던 과도기에 갈등하고 고민할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근대적 자아, 서사를 성찰적으로 이끌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여겨졌다. 당시의 남성은 자신들이 중심인 세계에 살고 있었고 그 힘을 충분히 누렸지만, 실제로 다수의 남성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¹⁾을 갖추지 못한 채 무책임하고 무력한 현실에서 상처를 받았다. 근대 초기 조선 남성들에게 헤게

1) R. W. 코벨, 안상욱·현민 역, 『남성성/들』, 이매진, 2013, 123~130쪽.

모니적 남성성이란 아마도 서구적 교양과 근대문명에 대한 지식, 자본주의화에 따른 직업적 업무 능력 혹은 경제력, 식민 현실을 타개할 정치적 이념과 실천력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남성들은 이런 능력을 갖추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일본제국주의 남성 집단의 지배에 의해 주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제 식민 치하의 중심에 설 수도 없고 서서도 안 되는 조선남성 집단의 갈등과 사회문제가 소설의 주요 소재가 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젠더내의 구조 속에서 이해했다는 데에 있다. 이 모든 문제에서 여성은 바깥에 있는, 잉여적이고 종속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이러한 남성의 시각과 여성의 위치는 근대 서사에서 여성인물의 역할과 형상화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남성내포작가에 의해 포착되고 남성인물화자의 시선과 목소리로 그려진 여성은 주인공이 되더라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거나 딸이거나 사랑의 대상, 그리고 아내라는 일반명사로 나타났다.²⁾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나 의미를 부여받았던 것이다. 특히 아내는, 주체적 인물이 되기보다는 남편의 보조역이거나 적대자와 같은 서사적 기능으로 더 의미가 있었고, 의도적으로 삭제되거나 생략되기 일쑤였다. 아내를 주인공으로 삼은 현진건의 「빈처」조차 “신풍조에 띄어 까닭 없이 구식여자를 싫어”하던 과거를 떨치고 구여성 아내의 헌신적 사랑에 눈을 뜨는 남편, ‘나’에게 초점이 가 있다. ‘빈처(貧妻)’는 사소한 욕심을 숨기고 가난한 문사인 남편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집안의 천사’³⁾

2) 1920년대 연애담론을 연구한 임정연에 따르면 이 시기 서사에서 아내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임정연, 「1920년대 연애담론연구 : 지식인의 식민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6, 138쪽.

3) ‘집안의 천사’는 빅토리아 시대 대영제국이 만들어낸 억압적인 성 정치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가정의 지배자이자 이상적인 어머니, 그리고 아내이자 딸이며, 아늑하고 단란한 가정의 중심 역할을 하는 종교적, 도덕적 미덕의 원천’이었다. 이 개념은 여성들을 속박시켜 온 기만적인 전략으로 비판받았으며, 동시에 영국에서 ‘근대화된 삶이 가져다준 불안감에서 도피할 수 있고, 종교적인 신앙심이나 근대적인 상업논리로는 더 이상 확인받을 수 없는 가치들’을 여성에게서 발견하려는

가 됨으로써 허구상의 해피엔딩을 맞이한다. 무지하고 순종적인 구여성 아내의 모습을 ‘아내다움’으로 그리는 현진건의 시선이 그대로 담겨있다. 염상섭의 문제작 『만세전』에서 ‘나’ 이인화를 조선으로 불러들이는 ‘아내’는 남편의 사랑도 시가의 자상한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병들어 죽어가는 구여성이다. 만세 전, 한 지식인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장황한 관찰과 자각, 개성의 발견은 고평되었고, 아내에 대한 냉정한 태도는 조혼의 폐습과 과도기 지식인의 고민, 고백적 글쓰기 방식으로 충분히 변호되었다. 허구에서도 현실에서도 아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비평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다.

그간 남성작가의 ‘펜(penis)’에 의해 재현된 근대소설 속의 여성이미지 비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당대의 젠더 담론과 비교를 통해 재현의 개연성도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 연구들은 여성억압의 현실을 분명하고도 반복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문제 삼으려는 1930년대의 ‘아내’ 이미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곧 1920~30년대의 구여성 아내는 결핍되고 열등한 존재로서 ‘새 시대의 교양과 통찰력이 부족’하여 신여성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또한 아내는 남편과 시가의 폭력을 묵묵히 참아내야 했고, 자유롭게 이혼하기도 어려웠으며, 남편의 소유로서 생계를 위해 매매되거나 직업여성이 되어야 했다. 신가정을 이루려는 신여성조차도 양처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고 남편의 교정과 지도에 따라야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남성은 가부장권을 강화하고 여성은 근대적 가정의 현모양처를 욕망하며 길들여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⁴⁾ 남성의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타자화 된 존재로서 당대의 ‘아내’

남성작가의 양가성을 드러낸다는 평가도 있었다.(박형지·설혜심, 『제국주의와 남성성 - 19세기 영국의 젠더 형성』, 아카넷, 2004, 118~130쪽.) 한국의 근대 서사에 나타나는 천사형 여성상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다.

4)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임정연, 「근대 젠더담론과 ‘아내’라는 표상」, 『배달말』 45, 2009 ; 전미경, 「1920-30년대 ‘남편’을 통해 본 가족의 변화」, 『한민족문화연구』 29, 2009.; 진선영, 「부부 역할론과 신가정윤리의 탄생」, 『여성문학연구』 28호 ; 김미영, 『1920년대 여성담론 형성에

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남성작가의 글쓰기에서 그대로 재현되었고, 그것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지배의 공공연한 또는 은폐된 승인”⁵⁾의 결과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재현 내용과 전략에 대한 확인을 바탕으로 당시 남성작가의 글쓰기에 나타난 윤리적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근대적 주체로서 남성작가는 당시 여성(아내)에게 가해진 불합리한 제도와 억압적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문제의식으로 창작을 했는가이다. 둘째, 남성작가의 여성이미지 재현이,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와 식민지 현실에서 위축된 남성성과 주체의 불안을 은폐하려는 자기방어 전략과 어떤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는가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1930년대에 ‘아내’를 표제로 하여 창작된 일련의 소설작품이다.⁶⁾ 1930년대 이후의 서사에서는 구여성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3 ; 박혜경, 『남성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들』, 『한국문학연구』, 1997 ; 박정애, 『근대적 주체의 시선에 포착된 타자들』, 『여성문학연구』, 2001. ; 노지승, 『한국 근대소설의 여성 표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5. ; 신수정,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재현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3. ; 배효진, 『1920년대 전기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연구』, 세종대 박사논문. 2009 ;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5) 이혜령, 『한국 근대소설과 섹슈얼리티의 서사학』, 소명출판, 2007, 19쪽.

6) 이 논문의 대상으로 삼은 1930년대의 아내표제소설은 다음과 같다.

이광수, 『혁명가의 아내』, 『동아일보』, 1930.1.1. ~ 2.4.

김동인, 『무능자의 아내』, 『조선일보』, 1930.7.30. ~ 8.8.

채만식, 『감독의 아내』, 『동광』 31호, 1932.3.

이기영, 『변절자의 아내』, 『신계단』, 1933.5.

박노갑, 『안해』, 『조선중앙일보』, 1933.9.30. ~ 10.2.

김유정, 『안해』, 『사해공론』, 1935.12.

안석영, 『안해』, 『여성』, 1936.11~1937.4.

김남천, 『처를 때리고』, 『조선문단』 속간 11호, 1937.6. 『소년행』, 학예사, 1939.

김남천, 『이런 안해(혹은 이런 남편)』, 『농업조선』, 1939.4.

물론, 이전 시기에도 ‘아내’를 표제로 한 작품이 발견된다. 10년간 같이 살던 아내가 1년 전에 가출했다가 돌아오는 것을 문사인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고민하다가 아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최승일의 『안해』(『신여성』, 1924.6.)와 어리석은 정도로 순박한 물지게꾼이 아내와 그 간부에게 사기당하는 과정을 그려낸 염상섭의 『똥과리와 그의 아내』(『신민』, 1929.11) 등이 있다.

아내와 신여성 간의 대립, ‘자유연애-자유결혼’으로 이룬 신가정의 이상과 현실의 균열,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정해체와 갈등 등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에는 아내가 제목에 들어있는 작품이 상당수 발견된다. ‘아내(혹은 처)’를 표제로 한다는 것은 부부 관계를 소재로 한 남편(남성)의 시선과 글쓰기 과정이 중심이라 전제할 수 있다. 실제로 장덕조의 『안혜』(『신가정』, 1934.2)를 제외하고 남성작가의 작품이며, 주로 자전적이거나 주변인을 모델로 한 소설로서 작가의 재현 근거가 비교적 뚜렷하여, 본고의 목적인 1930년대 남성작가의 글쓰기 태도를 더욱 잘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책임의 회피, 열등한 타자의 일탈

근대 서구 문명의 세례를 받은 지식인들에게 전통과 구습은 부정의 대상, 근대화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로 인식되는 일이 많았다. 자신과 가족을 묶는 불합리한 제도와 전근대적인 생활방식, 특히 하층민들의 피폐해진 일상과 비윤리적인 행위 등은 계몽의 대상이자 열등함의 기표였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갖추고자 신교육과 신사상, 신문물과 신생활을 수용하기에 조급했던 남성 지식인들에게 이 모든 ‘구’투과 구습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어떤 것으로 비쳐졌다. 그들은 도시로, 식민 제국으로 떠나 신여성과의 자유로운 사랑을 꿈꾸었고, 지배적 문화영역에 포함되지 못한 황무지의 일상은 은폐되거나 격리되었다. 김유정의 『안혜』는 바로 그렇게 거리를 둔 채 교정과 계몽의 대상이 된 농촌 하층민 부부의 일상을 희화화시켜 그리고 있어, 재현 내용과 내포작가의 어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남성 지식인들에게 구여성 아내도 결핍의 기호이자 열등한 타자였다. 그들은 직업여성이 될 능력도 없고 신가정을 꾸밀 새로운 교양과 통찰력, 지식도 없는 존재였다. 가정 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였고, 가정이라는 성

역을 벗어나서는 더욱 불안정한 삶으로 내팽개쳐졌다.⁷⁾ 경계를 넘어 새로운 삶을 꿈꾸 자유도 욕망도 모두 위험하기 이를 데 없었다. 구여성과의 결별을 꿈꾸는 신지식인 남성들에게 이들의 출분과 일탈, 불행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책임이 일정 부분 있었으나 대부분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들 역시 강제 조혼의 피해자였기 때문이었다. 김동인의 『무능자의 아내』는 이러한 구여성 아내의 출분과 타락의 과정을 회피와 은폐의 글쓰기로 보여주고 있다.

2.1. 그들의 윤리, 우처(愚妻)와 우부(愚夫)의 궁합

1920~30년대 농민층의 전반적인 몰락과 빈민화는 부부관계와 가족의 자연스러운 해체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찾아 떠난 남편이 아내를 유기한 채 사라짐으로써 이혼하는 일도 많았고, 남편의 가부장적 폭력과 종속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아내가 출분하는 일도 있었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가정 밖의 새로운 노동인력으로 편입되려고 아내가 집을 나서는 일도 많았다.⁸⁾ 김유정 소설에는 이런 가족 해체와 유사 출분이 소재로 등장한다. 『만무방』에서 응철은 먹고 살기 어려워 야반도주하며 가족들과 헤어져 동생 집에 오게 된다. 『산골나그네』에서 거지 아내는 병든 남편을 살리기 위해 다른 남성과 거짓결혼을 하기도 한다. 『소낙비』에서는 외간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첩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고도 기뻐하

7) 출분은 사실상 이혼을 위한 선택이었고, 그렇게 이혼한 여성은 가정에서도 가정밖에서도 설 자리를 잃었다. 지속적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불안정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출분한 여성은 공장노동자, 행상, 어멈, 유치원 보모 등 노동을 통해 자활의 길을 모색하였으나 여성에게는 열악하고 성차별적 노동환경으로 인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게다가 재산분할권을 허용하지 않았던 불평등한 이혼법 등의 현실은 이혼여성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소였다. 소현숙, 『생존과 자존의 길 찾기 - 1920~30년대 여성 이혼과 빈곤문제』, 『여성문학연구』 32호, 2014.

8) 가출의 원인은 시부모와 남편의 구타와 학대, 남편에 대한 불만과 혐오, 다른 남성과의 정분 등 다양했지만 생활난도 주요한 원인이었다. 앞의 글.

는 아내가 나온다. 이같이 비윤리적인 부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김유정의 작품들은 재현된 내용과 미학적 해석의 충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가 된다. 대개가 ‘아내를 밀친으로 삼아 돈을 벌려는 한심한 남편들과 남편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아내’⁹⁾의 공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를 당대 농민의 아내에 대한 비하나 폭력, 비윤리성을 고발한 것이라고 간단히 결론지을 수 없는 균열의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연구결과들은 「소낙비」, 「가을」, 「정조」, 「산골나그네」, 「정분」, 「안해」 등에 나타나는 ‘아내팔기 모티프’도 부정적 현실의 극복수단, 사회적 폭력에 대한 폭로, 송고의 메커니즘 등으로 해석¹⁰⁾한다. 또 남편의 폭력과 비하의 행동조차 당대 조선 농민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인간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¹¹⁾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평가되고 있다. 결국, 빈궁하고 무력한 (남성) 농민의 현실을 그려내고 있는 개성적인 작품이라는 결론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안해」(1935)에 대한 해석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안해」의 남편은 들병이로 나서겠다는 아내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생계를 위해 아내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이익인지를 셈하며, 못생겼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력을 휘두르고 화풀이를 하는 파렴치한 남성이다. 그리고 아내는 가정의 노동력이고, 생계수단이며, 피곤한 남편의 화풀이 대상이자 불운의 핑계가 되는 존재, 남편의 소유물과 다름없다. 가부장제의 폐해와 여성의 성매매, 폭력의 문제가 재현되지만, 분명한 비판적(풍자적)

9) 최성윤, 「김유정 소설의 여성인물과 ‘정조」, 『김유정의 귀환』, 소명출판, 2011, 131~133쪽.

10) 극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부부간의 합의, 임시적 목계에 의한 것, 부정적 현실 극복의 수단이다. 박정규, 「아이러니와 변이된 상실감의 미학」, 『호서문학』 13집, 1987. ;수난의 역사나 사회적 폭력을 폭로하고 있다. 한상무,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부부윤리」, 『김유정의 귀환』, 소명출판, 2011. ; 불쾌와 쾌의 공존과 변화 확장이라는 송고의 메커니즘이 첨예하게 드러난다. 특히, 「산골나그네」에서 아내팔기 모티프에 나타난 아내의 송고한 행동은 좌절과 절망을 견뎌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높아지고 그만큼 더 도덕적이 된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김미현, 「송고의 탈경계성」, 『한국문예비평연구』 38집, 2012. 8.

11) 최성윤, 앞의 글.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채 서사화되고 있다. 특히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다음의 표현은 부부간의 교묘한 공합을 암시하고 있어 그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완화되고 만다.

우리가 원수같이 늘 싸운다고 정이 없느냐 하면 그건 잘못이다. 말이 낫으니 말이지 정분치고 우리 것 만치 찰떡처럼 끈끈한 놈은 다시 없으리라, 미우면 미울수록 싸울수록 잠시를 떨어지기가 아깝도록 정이 착착 붙는다. 부부의 정이란 이런 겐지 모르나 하여튼 영문 모를 찰거머리 정이다.¹²⁾

아무리 부부간에 싸움을 해도 결국은 ‘잠시를 떨어지기가 아깝도록’ 착착 붙는, ‘찰떡처럼 끈끈한’ 찰거머리 정이 있다는 서술은 이 문제가 타인이 관여할 수 없는 이른바 ‘칼로 물 베기’의 형국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작품이 인간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윤리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부부 혹은 가족의 울타리를 지탱해주고 인젠가 삶의 조건이 호전되면 정상적으로 복원할 잠재적 힘을 여성에게서 발견하고 있다¹³⁾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그 ‘부부간의 정’이라는 것도 남성(남편)의 시선에서 서술된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작품이 독자에게 전달되는 상황에 초점을 둘 때, 해석의 국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안해」는 1인칭 화자인 남편에 의해 서술된다. 이 화자는 “압도적인 능변”으로 독자를 몰입시킨다. 김근호에 의하면 이런 화자의 정서적 태도는 독자의 윤리적 사유 혹은 감각을 유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¹⁴⁾ 김유정은 화자를 통해 특유의 해학과 감칠맛 나는 언어표현을 구사한다. 서술의 중간 중간에 ‘땀을 낼 년, 경을 칠 년, 망할 년, 오라질 년, 집안을 망할 년, 망할 잡년’ 등의 표현을 리듬감 있게 반복하여,

12) 김유정, 『김유정 단편선 - 동백꽃』, 문학과지성사, 2010, 219쪽.

13) 한상무 앞의 글.

14) 김근호, 「김유정 농촌소설에서 화자의 수사적 역능」, 김유정학회 편, 『김유정과의 만남』, 소명출판, 2012, 78쪽.

아내에 대한 비하적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희적으로 읽게 만든다. 심지어 화자의 표현은 독자의 재미를 위해 실제보다는 다소간 과장되고 희화화되고 심지어 반어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암시조차 받게 한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못생긴 외양과 순진한 태도를 과장되게 표현하여 남편의 폭력과 비하의 근거를 마련한다.

계집 좋다는 건 욱하고 치고 차고, 다 이러는 멋에 그렇게 치고 보면 혹 궁한 살림에 쪼들리어 악에 받친 놈의 말일지는 모른다. 마는 누구나 다 일 반이겠지. 가다가 속이 맥맥하고 부아가 끓어오를 적이 있지 않냐. 농사는 지어도 남는 것이 없고 밧에는 물리고, 게다가 집에 들어서면 자식놈 킁킁 거러, 년은 옷이 없으니 떨고 있어 이러한 때 그냥 배길 수야 있느냐. 트죽 태죽 꼬집어가지고 년의 비녀쪽을 툅 잡고는 한바탕 흘 두들겨대는구나 한 참 그 지랄을 하고 나면 등줄기에 땀이 뺨 흐르고 한숨까지 후, 돈다면 웬만 치 속이 가라앉을 때였다.¹⁵⁾

아내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인데도 화자의 서술태도는 매우 당당하다. “농사는 지어도 남는 것이 없고 밧에는 물리고”, 집에서는 아이도 아내도 불쌍하게 울며 떨고 있으니 “부아가 끓어” 오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남성)농민의 곤궁함으로 초점을 옮김으로써, 분노로 인한 폭력을 합리화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¹⁶⁾

이 작품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들병이 수업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태도이다. 남편이 보기에 아내는 박색인데다 음치이고 우둔하여 자신이 가르쳐주는 노래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한심한 존재이다. 남편

15) 김유정, 앞의 책, 218쪽.

16) 하층민들의 생활난과 실업, 빈곤으로 인한 아내들의 동거 거부나 무단가출, 남편의 축첩 등 다양한 상황들이 계기가 되어 폭력이 빚어졌다. 생존조건인 약화는 식민지 시기 가정불화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요 계기였다. 소현숙, 「고독한 외침, 식민지 시기 아내/며느리에 대한 사형과 여성들의 법적 투쟁」, 『역사비평』, 2013.8.

은 들병이로 나서겠다는 아내를 무시하며 노래를 가르치는 동안 새디스트적인 쾌락에 빠진다. 우둔한 아내에게 ‘교정과 지도’를 하는 남편의 권위를 만끽하는 것이다. 문제는 아내가 남편의 지도와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데에서 시작된다. 아내는 야학에서 신식 노래를 배워오고, 다른 사람들의 정보에 따라 담배를 배우고, 몽태라는 동네 남자와 어울려 술을 배우는 것이다. 아내는 스스로 가정의 경계를 넘어 현명한 자립의 준비를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사회화¹⁷⁾를 경계를 시선으로 본다. 그리고 중국에는 자신의 권위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소유물을 상실할 것에 대한 염려로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저 아이를 낳아 살림밀친을 마련하겠다는 새로운 꿈으로 위장함으로써 아내를 가정 내의 존재로 가두기로 하는 것이다. 마지막의 계산은 결국 이 화자가 얼마나 우둔한 인물인가를 드러내고 있어, 서사의 전도가 이루어진다.

이 소설은 부부의 우매함, 아내의 폭력에 대한 순응, 본능에 철저한 장면, 화자의 유희적 서술 등이 심리적 지적 거리를 발생시킴으로써, 독자에게 감정이입이나 동일시가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이것은 이해령의 지적대로 하층민을 통한 원시적 삶의 표상으로 문명권에 있는 엘리트와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기력한 남성엘리트의 미학적 상쇄전략”에 다름 아닌 것이다.¹⁸⁾ 이와 같이 「안해」는 우부와 우처에 대한 회화화된 서술 전략을 통해 가부장의 폭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거리 두기를 통해 차별화함으로써 문제로부터 회피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17) 이 부분은 1930년대 농촌에서 진행된 농촌진흥운동이 농민여성에게 끼친 영향을 짐작케 한다. 이 같은 사회적 동원에 의해 전통적으로 가족이 독점했던 부덕(婦德)의 혜택을 약화시키고 부계친족집단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 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314쪽.

18) 이해령, 『동물원의 미학-한국 근대소설의 하층민의 형상과 섹슈얼리티에 대하여』, 『한국소설과 글상학적 타자들』, 소명출판, 2007, 37~38쪽.

2.2. 보복의 글쓰기, 출분의 환상과 타락

1920~30년대에는 가정이라는 성역을 벗어나 자활의 길을 찾으려 출분한 아내를 소재로 한 소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그 대부분은 조혼한 구여성이 (신여성을 만난) 지식인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집을 나서는 정황을 그리고 있다. 김일엽의 「자각」(1926)은 조혼한 구여성의 성공적인 독립기이다. 유학 간 남편을 기다리며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던 ‘나’가 임신 8개월째에 남편으로부터 돌연 절연장을 받지만, 결혼생활이 ‘노예의 삶’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자각, 신교육을 받고 자립하게 된다는 편지글 형태의 작품이다. 강경애의 『어머니와 딸』(1931)에도 유학을 간 후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떠나 노동자로 운동에 투신할 결심을 하는 구여성 아내가 나온다. 두 작품 모두 가부장적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의 자각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남성작가의 작품에서도 이혼을 당하거나 출분한 구여성 아내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심훈의 『직녀성』(1935)은 조혼한 구여성이 모진 시집살이와 남편의 비합리적인 태도를 견디며 살지만 결국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남편과 이혼하고, 자살 시도 끝에 유치원 보모가 된다는 장편이다. 아내의 수난에 초점이 가 있는 ‘감상적 플롯’¹⁹⁾으로, 결국 성공적인 여성의 독립을 그려내고자 하고 있다.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에서 주인공 ‘노라’는 변호사인 남편에게 실망을 느껴서 가출한 후 경제적 역경과 성적 시련을 겪다가 인쇄소 직공이 되어 결국 노동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여성작가이든 남성작가이든 출분한 아내가 자립해가는 과정을 낙관적으로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말은 실제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19) 불운의 위협을 이겨내고 결국에 가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공감적인 주인공을 포함하는 플롯으로서 미덕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 노오먼 프리드먼, 『플롯의 제 형식』, 김병욱 편, 최상규 역, 『현대소설의 이론』, 대방출판사, 1984, 180~181쪽.

김동인의 「무능자의 아내」는 1927년 김동인의 아내 김혜인의 출분을 소재로 한²⁰⁾ 자전적 소설로서, 준비 없는 출분이 여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는지를 비정하게 그리고 있다. 제목부터 ‘무능자’임을 표방했을 뿐 아니라, 초반에 영숙의 남편을 “방탕한 남편 방중한 남편, 무능자, 그러면서도 아내에게 대하여는 그 지아비로서의 온갖 권리와 심지어는 정도 이상의 호의와 희생을 요구하는 남편, 아내의 무지를 저주하면서도 자기의 무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김동인은 김혜인에 대한 분노와 섭섭함을 지우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과 부끄러움으로 소설을 쓰기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후의 내용에서 이 소설쓰기의 이유가 다른 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아내 영숙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지만, 화자는 영숙의 내적 고민을 무성의하고 냉담하게 서술하고 회화화하는 태도조차 보여 내포작가와의 분명한 거리가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영숙이 교육을 받고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는 어리석은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어 서사의 내용은 점차 반어적인 상황을 향한다. 우선, 출분의 원인을 영숙의 정신적인 허영과 충동으로 보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영숙은 남편의 서가에서 『인형의 집』을 읽었지만, 유능한 남편 헬머를 두고 노라가 왜 출분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 공상만 가지고 모방행동을 하였다는지, 그저 잠깐의 여행을 갔다 오려는 것을 ‘출분’이라는 연극으로 만들었다가 공포와 절망을 느끼게 되었다는 식이다. 즉 영숙의 출분이 남편의 무능과는 무관한 시대조류²¹⁾를 따른 것인 양 서술하고 있다. 김동인이

20) 김동인은 물려받은 재산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부유한 소설가였지만, 극단적인 방탕의 결과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1926년 수리사업(토지관개사업)에 손을 대었다가 재산을 거의 날리게 되었다. 그의 방탕한 생활과 문란한 여자관계, 그리고 재산의 손실 등을 참다못한 아내 김혜인은 나머지 재산을 정리해서 집을 나갔다. 이상진, 「오만한 예술가의 초상」, 『한국근대작가 12인의 초상』, 옛오늘, 2004, 65~67쪽. 이 소설은 그 후 3년 정도가 지난 후인 1930년, 김경애와 재혼을 하고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되찾은 상황에서 발표한 것이다.

아내 김혜인의 출분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한 의도가 작용²²⁾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다.

또 영숙은 구여성으로서 전통적 부덕이나 모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이(옥순)를 데리고 떠났지만, 아이와 자신을 돌볼 의지가 부족하여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돌려보내기 때문이다. 영숙의 이 행동은 화자의 서술이나 남편의 말 등이 아니라, 제3자의 의견을 통해 비판되고 있다.

(가) “이봐요, 아직 여섯 살 난 어린애가 어미를 버려두고 애미를 따라 가겠다는구려. 애 어미라는 사람은 아이 어미 노릇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 이야요. 마- 사내구려. 여인이 아니야.”²³⁾

(나) 영숙의 평판이 평양에서는 매우 나빴다. 점잖은 집 딸, 명가의 아내, 두 아이의 어머니, 조강지처, 이러한 사람이 가정과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달아났다 하는 것에 평양시민의 노여움이 발한 것이었다. 더구나 남편의 재산이 다 없어지는 것을 기회로 달아났다 하는 것은 더욱 그들의 노여움을 돋우었다.²⁴⁾

(가)는 영숙이 하숙하고 있는 일본의 노파가 하는 말이며, (나)는 고향인 평양에서의 평판을 읊긴 것이다. 이 인용은 출분한 아내에 대한 사회의 가부장적 시선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화자는 제3자의 시각으로 비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집으로 돌아갈 기회를 잃은 영숙은 급격하게 파멸에 빠지게 되는

21) 김혜인의 출분 시기인 1927년 전후는 서구적 사랑, 연애의 제 의식 및 남녀평등을 주창한 제 사상이 일본을 통해 이입, 신청년들 간에 전파되었다.

22) 정혜영, 『삶과 문학의 경계 - 김동인의 <무능자의 아내>를 중심으로』,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30집, 2006.

23) 김동인, 『무능자의 아내』, 김동인, 『김동인단편전집 1』, 가람기획, 2006, 441쪽.

24) 김동인, 앞의 책, 443쪽.

데, 이는 이른바 “가정과 남편을 뒷밭로 차 던지고 뛰쳐나온 사람들로 조직된 그룹”에 속하면서부터이다. 화자는 이 모임의 성격을 다음처럼 설명한다.

그들은 모이면 남성의 포학함을 욕하였다. 남성, 더구나 남편이라는 남성의 우월감과 거기에서 나온 압제를 저주하였다. 그리고 여자의 해방을 부르짖었다. 우리도 사람이다 하였다.

그리고 아무 불평과 불만이 없이 가정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정에서 뛰쳐나오기를 권하였다. 남편을 반역하기를 권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유일의 표어는 인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었다.²⁵⁾

이 모임에 대한 무성의하고 악의적인 표현만으로도 김동인의 부정적인 시선과 비판의 의도가 짐작된다. 결국 영숙은 이러한 신여성 그룹에 속하게 되면서 성욕의 쾌락에 몸을 맡기는 타락자가 되어 가며, 가지고 나온 전 재산을 잃어버린다. 반면 남편은 새로운 여성을 만나 소설가로 성공하게 되었음을 신문에서 확인한다. 이 마지막 장은 집을 나간 아내와 남편의 현재를 극단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어 작위적인 느낌조차 있다. 물론 이런 설정은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근거를 지닌 노라의 기출과 노라에 대한 이상적 동경 속에서 ‘영웅적인 일면’에 도취되어 스스로 조작해낸 환영과 환상을 통해 행해지는 출분”의 거리를 제대로 형상화하여 개인사를 넘어 시대성을 확보하고 있다²⁶⁾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신여성에 대한 김동인의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자신의 방탕함, 무능력, 비윤리적 태도와 무책임함을 ‘출분’으로 인한 타락과 신여성 일반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로 포장하여 은폐해버리려는 글쓰기에 있다. 김동인은 실패한 결혼과 실책에 대한 분노를 감당할 희생자로 구여성 아내를 선택하였고, 이것을 소설쓰기를 수단으로 폭로

25) 김동인, 앞의 책, 445쪽.

26) 정혜영, 앞의 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점은 가정을 지켜나갈 자신의 ‘양처상’을 역시 소설형식을 빌려 표현한 것에서도 발견된다. 김동인은 새 아내를 수신자로 하여 쓴 편지글 형식의 소설 「약혼자에게 - 김경애 양에게 보내는 글」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아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는 가정에서는 착한 지어미가 되고, 어린애에게는 좋은 어머니가 될 자격과 품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사회의 투사를 나의 가정에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현대식의 경박한 여자에게 귀중한 ‘가정의 주권’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무지한 사람에게 중대한 아이 교육의 사명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요컨대 세상이라는 것을 ‘사회’와 ‘가정’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절반을 점령한 가정, 이것을 넉넉히 지배하고 지도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이라야 가정에 들이겠습니다.²⁷⁾

요컨대, 우처와 양처를 비교하여 그려낸 이 두 작품에서 김동인은 그저 소설작품 내에서 “주인으로서 말하고 거리낌 없이 행동하면서 사회에서의 자신의 실패를 양갓음”²⁸⁾하고 있다. 자기 서사가 주는 위험한 매력에 스스로 갇혀 자신의 무능력과 무책임한 행동을 변명함으로써 결국 김동인의 작가로서의 상상력과 영광은 퇴색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3. 비난의 전가(轉嫁), 나쁜 동반자의 역할

1930년대 초반, 소설가 주요섭은 당대 여성이 지향해야 할 행로, “본능적인 충동”을 ‘현모양처’라고 못 박고 있다. 이런 주장을 포함하여, 신여

27) 김동인, 「약혼자에게」, 김동인, 앞의 책, 452쪽.

28) 모리스 블랑쇼는 이처럼 예술가들이 비현실의 세계에 자리 잡으면서 행동하기 어려운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경우를 예술 활동이 가진 위험의 하나로 지적한다. 모리스 블랑쇼, 이달승 역, 『문학의 공간』, 그린비, 2011, 60~61쪽.

성이든 구여성이든 새로운 가정의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에 복종하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내용을 담은 남성들의 담론이 『신여성』 잡지를 가득 채웠다. 이 잡지를 구독하고 관여하던 특권층 여성들 역시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통해, 신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남편의 애인 같은 아내가 되기를 소망했다.²⁹⁾ 이렇게 1930년대의 지식여성들은 조혼한 남편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구여성 아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아내가 되고자 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 경제공황의 여파가 나타나고, 사회가 전시체제로 재편되면서 일제는 여성들의 역할을 전사를 길러내는 어머니의 역할,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는 아내의 역할을 강요하였다.³⁰⁾ 즉, 근대적인 화장술, 요리법, 재봉술, 의학지식과 육아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가정을 돌보는 관리자가 되어야 했다.³¹⁾ 여성성 대신 모성성을, 공적 공간에서의 자기실현 대신 사적 공간에서의 가정관리를 우선시해야 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남성 중심의 질서와 세계관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성, 자신의 여성적 욕망에 충실한 여성은 위험한 존재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분위기가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신여성은 종종 낭비와 사치, 허영의 상징으로 비난받았고, 1930년대 후반이 되면서는 오히려 구여성 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³²⁾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혼한 남성의 본처가 되지 못하고 동거관계에 있던 신여성들은 사회의 냉대와 비난, 가정 내에서의 차별까지 감내해야 했다. 중혼 금지법에 의해 이른바 “제2부인”으로 불린 신여성들은, ‘자유연애 - 자유결혼’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조혼의 폐해가 빚어낸 과도기적 현상이었다.³³⁾ 이들은 신

29) 전미경, 「1920~30년대 현모양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권 3호, 2004.

30) 유영희, 「1920 30년대 ‘新家庭’과 ‘新女性’」,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52쪽.

31) 노지승, 앞의 글, 59쪽.

32) 김경일, 앞의 책, 50~54쪽.

33)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매체로 본 근대여성풍속사, 신여성』, 한겨

여성으로서의 지식과 교양을 갖추고 신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처가 있는 남성을 유혹하여 가정의 평화를 무너뜨린 침입자이자 같은 여성을 몰아낸 가정파괴범이었다. 또한 부부간의 의무로 규정된 동거, 부양, 정조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불안한 위치에 있었다.

1930년대에 이념적 좌절과 경제적 무력함에 피폐해진 남성들에게 신여성 아내의 적극적인 성격과 경제적 능력, 여성성은 종종 위협시되었고, 자유연애의 경험과 가족관계의 느슨한 구속력은 남편의 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 장에서는 변절하거나 전향한 지식인들의 자기모멸감과 위축된 남성성에 의해 신여성 아내 혹은 제2부인의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그려지는지 살펴보겠다.

3.1. 모독과 변절의 대리자, 악처

이광수의 중편소설 「혁명가의 아내」(『동아일보』, 1930.1.1.-2.4.)는 「사랑의 다각형」, 「삼봉이네 집」과 함께 1930년대 농민과 지식인, 젊은이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이른바 군상(群像) 3부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은 병든 혁명가 공산(孔産)의 아내가 저지르는 불륜과 그 대가를 그 주요내용으로 한다. 공산과 동지애적 관계로 결혼한 방정희는 폐결핵으로 누워있는 공산을 치료하러 온 의전학생 권오성과 외도를 하여 임신까지 한다. 공산이 죽고 난 후, 정희는 권오성의 발길질에 유산을 하고, 옛 애인 강호영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나 혁명가가 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고 만다. 그렇지만 정희는 용감하고 성실한 아내이자 투사로 공의 곁에 묻힌다.

이 작품은 이광수가 스스로 밝혔듯, 이봉수(李鳳洙, 1892 -?)³⁴⁾라는

레신문사, 2005, 218쪽.

34) 이봉수(李鳳洙, 1892 -?)는 함경남도 흥원 출신으로 1920년대에 활약한 공산주의 운동가이다. 동아일보 경제부장과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식민지 시기 투옥과 출옥을 반복한 골수 공산당원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인물을 모델로 한³⁵⁾ 모델소설(roman à clef)³⁶⁾이다. 하지만 시작부분에서 화자는 주인공의 본명이 무엇인지를 비밀로 하겠다고 지나치게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혁명이 - 그의 이름은 공산(孔産)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것은 가명이다. 그의 본명이 무엇이나고 물어도 나는 절대로 대답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야기꾼이 지키는 유일한 비밀이요, 또 신의이다. 이야기꾼에게는 이 비밀 밖에는 다른 비밀이 없고, 이 덕의 밖에는 다른 덕의가 없다.³⁷⁾

이 작품은 남편이 있는 아내의 불륜, 연애사건의 전말에만 초점이 있을 뿐, ‘혁명’과 관련된 전후 서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풍자적이고 냉소적인 화자의 어조나 공산(孔産)이라는 희화화된 명명법이 나타나는 것 등으로 미루어 혁명이 집단을 우회적으로 비난하기 위해 창작한 소설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당시 프로문학가들의 비판은 물론, 이후 북한문학사에서도 일관된 비난을 받았다. 이기영은 주인공을 공산(共産)이 아닌, 공산(孔産)으로 명명한 것을 두고 공산주의 혁명가를 허사만을 쫓는 자로 모함하는 작품이라고 하면서, “일부러 이 소설의 주인공을 색광과 요부를 만드렸다.”고 비판하였다.³⁸⁾ 북한문학사에서는 혁명가들의 투쟁을 중상 모독한 극악한 반동소설이며, 소설에 나오는 혁명가와 그의 아내 정희는 모두가 참된 혁명가를 모독하기 위해 작가가 왜곡 형상한 인간쓰레기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35) 이광수, 『혁명가의 아내와 모델』, 『신여성』, 1932.4.

36) 모델소설은 현실에 실재하는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들을 허구적 기술 속에서 재현, 구성해내는 소설의 종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26년작 염상섭의 『해바라기』를 시작으로 1930년대 말에 가장 활발히 창작되었다. 모델소설은 그 특징상 특정한 성격 혹은 운명, 치부 들추기와 같은 이야기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작가들은 이런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강현구, 『1920~30년대 모델소설의 새로운 독법과 매혹적인 악녀상』, 『한국문예비평연구』 16권, 2005.

37) 이광수, 『혁명가의 아내』, 『이광수전집 2』, 삼중당, 1976, 465쪽.

38) 이기영, 『혁명가의 이해와 이광수』, 『신계단』, 1933.4.

고 비판하고 있다.³⁹⁾

이런 지적에서도 암시되어 있듯, 이 작품의 중심은 이념의 문제나 아내의 불륜이라는 스토리에 있지 않다. 공산이라는 인물을 우회적으로 비난하기 위해 창조한 악처의 표상에 있다. 이 악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광수는 천사와 마녀의 이분법적 이미지를 활용한다. 공산의 전처와 재혼한 방정희의 이미지를 대조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본처를 버리고 신여성과 결혼한 행위까지 혁명가의 변절 원인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가) 공산의 전처는 몸이 가냘프고 얼굴이 하얀 옛날 조선의 현숙한, 여차다운 여자였다. 그의 흰 얼굴은 마치 청자기 모양으로 파란빛을 띠었다. 청초한 그 자태는 미인이라고 할 만하였다.⁴⁰⁾

(나) 그의 눈이 가늘고 검붉은 빛이 도는 것을 보아도 알려니와, 그에게는 조선여성에서는 드물게 보는 표독함이 있다. (중략)

정희는 여자 중에는 몸집이 큰 사람이다. 살빛은 좀 가무잡잡하나 피부가 좋고, 특별히 체격이 좋아서 이를테면, 남자의 정을 끄는 육감적인 여자였다.⁴¹⁾

(가)에 인용한 것처럼 공산의 전처는 순종적이고 현숙한 구여성으로서 가냘프고 얼굴이 하얗고 청초한 자태를 지닌 여성이다. 반면, (나)에서 보듯, 재혼한 정희는 신여성으로 몸집이 크고 살빛이 검으며 육감적이고 표독스러움이 있는 팜 파탈(*femme fatale*)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광수는 불륜을 저지르고 혁명가를 배신하고 동료들 기만하는 악녀형 아내를 설정하여 혁명가의 이념과 위상을 비판하였다. 곧 아내를 대리로 내세워서 혁명의 허구성을 우회적으로 비난하였던 것이다. 남성 작가들의 글

39) 김하명 외, 『조선문학사(1926-1945년)』,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366쪽.

40) 이광수, 앞의 책, 466쪽.

41) 위의 책, 465~466쪽.

쓰기에 나타난 이런 무자각의 문제는 이 작품의 문제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글쓰기 전략을 통해 보복적 글쓰기를 한 이기영의 「변절자의 아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기영의 「변절자의 안해」(『신계단』, 1935.5)는 「혁명가의 아내」에 대한 문제제기로 발표한 것으로 이광수를 모델로 한 모델소설이다. 이광수가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후 일경에 쫓겨 상해로 탈출하였다가 허영숙이 찾아오자 함께 귀국하고 허영숙과 정식으로 결혼한 후 『민족개조론』을 연재한 것까지의 사건을 소설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민족주의자를 변절시키고 본부인을 버리게 만든 오염한 아내를 등장시켜, 이광수의 변절과 그 원인으로서는 허영숙의 행위를 폭로⁴²⁾하고 있다. 이기영은 허영숙 대신 함희정이라는 ‘양장아씨’를 창조하여 민족(이광수)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주의 주장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버리고 일개 아녀자의 뒤를 따라서 마치 도수장에 들어가는 짐승처럼” 돌아왔다고 표현한다. 이 소설의 화자 역시 「혁명가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비아냥거림이 포함된 풍자적인 어조와 패로디의 전략을 처음부터 드러낸다.

세상에서는 지금 그의 이름을 민족(民足)이라고 부른다. 그를 왜 ‘민족’이라고 부르는지 그것은 나도 잘 모른다. 나는 신문 기자나 정탐이 아닌지라 남의 비밀을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또한 그런 것을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유명한 ‘민족’에게 대해서는 다만, 그의 드러난 ‘사실’만 가지 고라도 훌륭한 이야깃거리가 몇 ‘다스’라도 될 줄 안다. 그것은 우선 ‘민족’이라 하면 아동주술까지라도 모를 이가 없으리만큼 그는 너무도 유명짜하기 때문이다.⁴³⁾

민족(民足)이라는 명명도 공산(孔産)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화화의

42) 조남현, 『그들의 문학과 생애 - 이기영』, 한길사, 114쪽 ; 임선애, 「<혁명가의 아내>와 <변절자의 아내>」, 『영남어문학』, 2002.

43) 이기영, 「변절자의 아내」, 『이기영 단편선 - 민촌』, 문학과지성사, 2006, 249쪽.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 재혼한 부인인 함희정의 아들이 **잡지사 주간인 피개량 선생의 발가락을 닮았다는 풍설의 설정도 모델소설인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를 둘러싼 염상섭과 김동인의 불편한 정황과 민족문학과와 카프의 초기 논쟁을 의도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혁명가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변절자의 아내」에서도 아내는 전처를 쫓아내고 아내의 자리를 차지한, 육감적이고 요염한 신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주변인의 말을 통해 “독살이 나면 여간 암상(남을 미워하고 샘을 잘 내는 잔망스러운 심술)쟁이가 아니겠”으며, “색골”로 생겼다고 표현된다.

당시 유학생계에 수재이던 ‘민족’씨도 이 ‘모던걸’인 함희정에게는 어쩔 수 없이 훌쩍 반해서 아들까지 낳고 아무 죄도 없는 전실 아내를 친정으로 쫓아버렸다 한다. 그것은 말뚝 같은 쪽은 찌고 봉건적 구도덕에 젖은 구식 여자의 언제든지 ‘날 잡아잡수’하는 동양식 부인보다는 육감적이고 열정적이고 활발하고 요염하고 또 이성(理性)을 끌어당기는 지남철 같은 마력이 있는 근대적인 신여성인 함희정이가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하고 붉은 키스를 보낼 때 그의 소부르적 자유사상과 부합했던 것이다.⁴⁴⁾

그 후 함희정은 이른바 신성한 스위트홈(이상적 가정)에 대한 욕망과 수호를 위해 행랑어멈까지 까다롭게 관리하는 등 가정 내 주부와 직업여성에 대한 분리와 경계⁴⁵⁾를 분명하게 하는 신가정의 주인이자 변절자의 아내가 된다. 그러나 이 작품은 여기까지를 끝으로 중단되었다.⁴⁶⁾ 이기영 으로서는 미학적으로 완성된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광수와 그

44) 이기영, 앞의 책, 255~256쪽.

45) 노지승, 앞의 글.

46) 실제 『신계단』 5월호에는 ‘계속’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후 연재가 되지 않고 미완으로 끝났다.

의 「혁명가의 아내」의 문제성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어쨌든 이 두 작품에서 이기영과 이광수는 서로 신여성 아내를 빗대어 공격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욕망의 대상으로 여성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⁴⁷⁾ 더 큰 문제는, 각 진영의 이념적 대립과 그 균열의 상황을 그 아내를 대리자로 내세워 그려낸 데 있다. 즉, 혁명가와 민족주의자의 변질의 원인을 신여성 아내의 잘못된 처신으로 돌리고, 남성은 그에 희생되는 무력한 지식인으로 그림으로써 책임을 면하고 실제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의 부담을 덜고자 한 것이다. 이런 식의 낮은 차원의 면책과 비난의 전략으로 된 글쓰기는 이들이 보여준 이념논쟁의 진정성조차 의심케 하는 기록이라 아니할 수 없다.

3.2. 자기고발 전략과 위험한 제2부인

1930년대 룬펜 인텔리를 그린 소설들은 대체적으로 그들의 무기력한 일상과 내면을 자기풍자와 연민의 눈으로 그리고 있다. 이들을 괴롭힌 것은 공적 영역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열패감이었겠지만, 이 고민은 대체로 일상의 사소한 갈등과 주변 인물들과의 불화로 대신 서사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하에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의 자격지심은 종종 아내에게 투사되어 표현되곤 했다. 이렇게 볼 때, 아내의 매춘행위와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내에게 기생하고 사육되는 룬펜 지식인의 일상을 그린 이상의 「날개」는, 아내를 매춘시켜서 생활하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죄책감을 은폐하기 위해 박제된 천재로서의 포즈를 취한 화자를 설정한 것이라고 고쳐 읽을 수 있다.

아내는 지식인의 무력함과 자격지심을 상기시키는 존재로서, 그들을

47) 이미림, 「이기영의 ‘여성해방’ 소설연구」, 『여성문학연구』 6권, 2001.

사정없이 전락시킨 말할 수 없는 적(보이지 않는 적)의 대리자로 종종 형상화되었다. 이런 특성은 1930년대 후반 사회주의 혁명이 실패한 후 양심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전향지식인들의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혁명의 이상이 좌절되고 패배감과 우울증에 빠져 있는 지식인들은 자기를 정당화시켜 줄 방어기제를 필요로 하였다. 또한 이념으로부터 물러서 생활로 돌아온 전향자들에게 무력한 일상은 남성의 권위와 가부장적 권력이 붕괴되는 현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오랜 시간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온 전향자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폐해진 까닭에 아내와의 성적 관계에서도 무력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증상은 현실에 대한 냉소와 섹슈얼리티에 무조건적인 혐오로 나타나기도 했다.⁴⁸⁾ 좌절된 이상, 비굴한 타협, 위축된 남성성, 이로 인한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그들이 찾아낸 가상의 적대자는 생활인으로서의 아내, 성적 욕망과 건강한 육체를 지닌 여성이 되었다.

김남천의 「처를 때리고」(1937)는 전향자인 남수와 아내 정숙의 부부싸움과 그 전후 이야기를 쓴 소설이다. 아내가 남편의 후배와 산책한 것을 숨긴 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싸움이 벌어졌고, 아내는 오래 묵었던 불만을 터뜨리고 만다. 조혼한 아내와 이혼하지 않아 자신을 제2부인(첩)으로 만들고, 피임수술을 하게 했으며, 친정과 친구들로부터 굴욕을 받아가며 학비를 대고 옥바라지를 했으나 시가로부터 인정은커녕 학대만 받았다는 것이다.⁴⁹⁾ 이 부분은 아내의 목소리를 직접화법으로 전달함으로써 당시

48) 한민주는 대부분의 전향소설에서 전향자인 남편은 생활의 문제보다 아내의 성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거부와 혐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남천의 경우 특히 전향의 타락상을 여성의 신체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향자인 남성의 시각에서 볼 때 여성들의 지방질적 신체는 세속화된 신체이며 건강한 신체는 부끄러움의 징표인 것으로 그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민주, 「1930년대 후반기 전향소설에 나타난 남성 매저키즘의 의미-김남천과 한실야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0권, 2003.

49) 기혼남성과 결혼한 신여성에 대해서 소위 '신여성 첩'이라 하여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 데 비해, 이 남성들에게는 그러한 비판이 별반 적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신여성과의 결혼을 위해 이혼과 재혼을 불사하는 남성들은 인습의

전향자의 아내 일반, 제2부인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생생하게 전달된다.

그러나 정작 이 부부싸움을 끝 간 데까지 몰고 간 것은, 남편친구의 성희롱까지 참아내어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대신해야 했던 사건을 전달하다가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이다.

흥 사회주의 이름은 좋다. 그 철없는것들이 웅계중계 모여들어 선생 선생 하니 그제 그리 신이나던가. 우쭐해서 갈팡질팡. 드럽다 드러워. 제어편네 젓통 만지는 건 모르구 눈앞에내놓는 지폐장만보이나.

징역이나 치르게 장한줄아는가. 거지에게 돈한푼준게 십년뒤에두 적선인 줄 아는가.

(중략)

정치답이나 하구다니면 사회주원가. 시국답이나 지꺼리고 다니면 사회주원가. 백 년이 하루같이 밤한술 못 벌고 십여년동안 몸을바친 제어편네나 때려야 사상간가. 세월이좋아서 부는바람에 우쭐대며 현수작이나 지껄이다가 감옥에 단너온게 하늘갈에서 백년가두 그걸루 행세꺼릴 삼어야 사회주의자든가.⁵⁰⁾

뒤늦게야 이 일을 전달하면서 아내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이 점점 거칠어지자, 남편은 ‘처를 때리고’ 만다. 자격지심으로 위축되고 부끄러운 상황에서 아내의 노골적이고 냉소적인 비난을 참아내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어지는 부분은 남편 남수를 1인칭 화자로 하여 진행되는데, 부부싸움 중에 나온 문제의 핵심은 피하고 오히려 아내의 성적 충동과 주변 남자들의 관계에 대한 질투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불안정한 동거 관계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의 부재 등 현실 문제는 외면하고, 그 대신 아내의 성적 욕망과 관계에 대한 의심, 남편에 대한 불순한 태도를 문제 삼는다.

제단에 올라갔던 희생자로 동정을 사기도 했다. 김혜경, 앞의 책, 311쪽.

50) 김남천, 「처를 때리고」, 『소년행』, 학예사, 1939, 155~156쪽.

대부분의 남성젠더 서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내의 속물성과 그런 아내를 경계하는 남편의 교화적 시선’⁵¹⁾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내의 자존심보다는 동지와 친구 등 남성간의 관계 유지를 우선시하는 남편의 시각은 다분히 문제적이다. 아내가 전달한 내용을 의심하고 상대 남성들끼리의 연대와 신뢰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문제의 방향을 돌려 놓고 있기 때문이다.⁵²⁾

아내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비정상적 집착과 비난은 김남천의 「이런 안해(혹은 「이런 남편, 『농업조선』, 1939.4)」에서도 나타난다. 아내는 여배우로 첫 영화의 시사회를 하고 돌아온 후 남편의 눈치를 보며 관계를 회복해보고자 하는 제스처를 보인다. 남편은 경제력이 없는 자신을 대신하여 아내가 여배우가 된 후로 그녀의 육체에서 ‘불순한 감각’, ‘불쾌’와 ‘질투’를 느낀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능하면 모른 척하려 한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무감각과 무지로 위장한 일상은 이상의 「날개」를 연상케 한다.

나는 영화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으로 옷감을 끈고, 양복을 짓고, 화장품을 사면 얼마나 돈이 남는지를 나는 알지 못한다. 그가 집에서 먹는 것은 하루 한때나 되나마나 하였으나, 어쨌든 찬값은 용하게 떨구지 않는다. 나 혼자 있을 땐 담배값과 설렁탕값이 그런 대로 떨어진 날이 없다.

나는 그가 낮이고 밤이고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아지 못한다.

(중략)

나는 몸서리를 치며 고깃덩어리를, 무감각상태에 빠진 두팔로 들어서 저만침 옮겨놓았다. 그리고 나의 직책처럼 된 먹은 그릇의 뒷치닥거리를 시작

51) 임정연, 앞의 글.

52) 강지윤은 이러한 대립을 ‘지식인의 윤리’ · ‘사회의 윤리’ 대 ‘가정의 윤리’ · ‘생활의 윤리’라는 대립적 구도를 표면화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지윤, 「전향자와 그의 아내-로렌 인텔리겐차와 자기반영의 문제들」, 『사이』 8호, 2010.

하였다. 난주는 계집이 할 것을 사내가 하는데도 움쩍달짝 하지 않는다.⁵³⁾

남편은 직업여성이 된 아내의 모든 것을 모른 척하고, 아내는 ‘계집이 할’ 집안일을 남편이 하는 것을 또 외면한다. 인용된 대목에서 볼 수 있듯, 남편은 집안에서 생활을 맡아 하면서도 아내가 번 돈의 쓰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육체를 ‘고깃덩어리’로 표현함으로써 동물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전락시킨다. 곧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생활의 영역에 아내를 위치시키고 혐오와 거리감을 드러냄으로써 무력해진 남성성을 은폐하고 정신적 순결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남천의 두 작품은 다른 전향소설과 마찬가지로 전향자인 남성작가를 대신하는 남성관찰자의 서술로 이루어진다. 이 서술을 통해 전향한 룸펜 지식인의 ‘자기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자기고발이라는 글쓰기 전략은 결국 위험한 타자로서의 아내에 대한 매저키즘적 형상화로 전향지식인의 자기연민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자기고발 서사 속에서도 아내는 무력한 근대지식인의 적대자라는 역할로 위치지어지는 것이다.

4. 관계의 성찰, 자각과 실천의 기대

1920~30년대에 확산된 ‘신가정담론’에서 여성은 사적인 영역인 가정을 담당하며, 남성은 공적인 영역으로 분리된 사회 일을 하는 것이 근대적 성별분업이자, 이상적 부부역할로 여겨졌다.⁵⁴⁾ 1920년대 신여성은 여성해방을 부르짖고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직업을 선택했지만, 1930년대의 신여성, 근대교육을 받은 여학생 대부분은 가사종사자로 신가정의 주

53) 김남천, 『이런 안해(혹은 이런 남편)』, 『농업조선』, 1939.4.

54) 최정희, 『신가정 교육에서의 아버지 연구 : 1920~30년대 신문 잡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논문, 2011. 39쪽.

부가 되었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자신의 고정된 성적 역할로 한정짓게 된 것이다. 근대소설에서 아내가 근대적인 개성과 이름을 가진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저 '아내'라는 타자의 역할과 기능으로 불리어진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아내표제소설은 대체적으로 아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비판함으로써 현처와 양처 담론을 강화하고 있다. 또 공적 영역에서의 남성의 역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삭제한 채, 무력한 남성성을 변명하고 합리화하고자 하는 의식적/무의식적 전략이 무리하게 서사를 이끌고 있다. 다음에서 살펴볼 작품들은 양처 혹은 현처의 이상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점에서 역시 여성 억압적이고 계몽적인 의도가 다분하지만, 남성(남편)의 자기반성과 비판, 성적 분업과 역할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박노갑의 처녀작 「안해」(『조선중앙일보』, 1933.9.30.~10.2.)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지식인의 자기 연민과 고발이 중심이다. 실직한 주인공 찬호는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아내의 편지를 받고 고향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농사일에 서툴기만 하여 하는 일마다 방해가 될 뿐 온전한 성인이자 가장으로서 제 일을 해내지 못하고 '건달' 소리만 듣다가 결국 서울로 돌아오고 만다. 가난한 일가에게 취직소식을 전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임신을 했다는 아내의 편지를 받는다. 임신소식을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면서 전달해야만 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끝으로 답답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아내는 가족을 떠나 10년째 공부만 한 지식인 남편을 위해 쉬지 않고 노동하며 고향의 가정을 지키는, 희생적인 구여성이다. 누구보다도 남편의 취직을 바랐지만 결국 남편이 실직한 채로 귀향하여 무위도식하자, 아내는 현명하고 간곡한 충고를 한다. 모두들 바빠 일하는 농촌에서 무력한 지식인, 잉여적인 존재로 생활하고 있음을 자각시키는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찬호는 보았다. 늦으면 깨우기도 하였다. 찬호가 꿀을 내면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 이는 나가 일을 한참씩이나 하였는데 아침도 안 먹고 잠만 자고 누웠으면 좋겠다고들 해요? 어서 일어서세요.”

하는 아내의 간곡한 충고를 그는 가끔 들었다.

아내는 남편이 무슨 일이든 일을 붙들면 좋아했다. 호미나 삼을 쥐고 나갈 때 들어올 때 그는 아내의 얼굴에서 이 표정을 보았다. (중략)

한동안 찬호는 자기에게 적당한 일을 찾기에 열중하였다. 집안 식구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보다는 미움을 덜지도 모르고 아내가 좋아하는 까닭이었다.⁵⁵⁾

아내는 남편의 무능력을 탓하지 않고 함께 노동할 것을 권하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위해 자기 영역에서 역할을 다 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결국 적응하지 못하는 남편을 서울로 돌려보내고, 아내는 인내와 희생의 자리로 되돌아온다. 뿐만 아니라 임신이 남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알고, 어미가 되기 위해 “한 칸 움집을 모으는 것”을 의무로 여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분명 가정에 충실한 노예이자 일하는 기계, 실용품적인 여자로서 구여성의 전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양처담론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침묵과 순종, 희생을 내면화한 결과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사랑과 현명한 상황 판단,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그리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석영의 「안해」는 신남성과 신여성의 자유연애를 기반으로 결합한 신가정의 문제와 해결과정이 아내의 내면에 초점을 두고 서술된 소설이다. 장편으로 기획되었으나, 총 6회만에 ‘전편종료’라는 설명과 함께 연재가 종결되었다. 1~4회는 결혼 후 변모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내적 갈등

55) 박노갑, 「안해」, 『40년』, 깊은샘, 1989, 182~183쪽.

과 심리묘사가 중심이고, 5~6회는 남편 최씨와 주례를 맡았던 풍원선생의 이면성을 풍자하고 다양한 부부의 모습을 관찰, 평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 마디로 이상적인 부부관계와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성찰하고 제시하는 계몽적인 서사로 볼 수 있다.

주인공 김영란은 남편 최씨와 변치 않는 사랑의 맹세를 주고받는 등 낭만적인 연애 끝에 결혼하였지만, 결혼 후 남편은 점점 다른 남성들과 다름없는 거부장적인 면모를 보인다. 결혼 전에는 “자기의 지배자”, “왕”, “신(神)”과 같이 보였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폭군(暴君)과 가치”, “마왕과 가치” 변하였고, 결국 동물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남편은 자신을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고 남들 앞에서 호령하고, 금지하고 억압하며, 처가를 무시하고, 영란을 “한 개의 안해”로, “아이를 낳는 직분만을 가진 가축”으로만 돌려버렸다는 생각에 이른다. 하지만 아이를 잃고 난 후에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시선 때문에 스스로 집안 살림을 하며 노동에 힘쓴다. 유일한 취미는 신문과 소설책을 읽는 것이지만 남편은 이성(理性)에 눈을 뜨면 여성으로서의 천직을 잃기 쉽다고 경고한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병이 난 남편이 불평을 쏟아내자, 결국 참았던 생각을 털어놓는다.

“당신은 팔자가 조흔편이에요. 날마다 연회니 무에니하고 매일장취니 아모리회사의 밭바닥이 아니라 밭바닥의 밭바닥이라도 그건호강이에요. 집에 드러오면안해란사람이 물지게까지 지고 물을기러다가 밥을 지어드리고 --- (중략) --- 길에를나가보셔요 비참한광경을 얼마나 만히보는가를요 아 마뻘똥이나 어느층계에서 잠을자는 거지의 꿈이제일 슬플것어요 그들로는 저희들이 이세상에서 제일 불우하다구 생각할게야요. 그 외에도 인생의 맨 밭바닥에서 사는사람들을 생각해보셔요. 나도 이러케지내다가는 그들가운데 끼워서 당신을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할지도 몰라요. 아마 불행하기는 당신보다 나일것이에요. 언제 당신이 나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한번이나 생각해보았어요 나를 사람값에나 쳐보았어요! 나도 뜻이 있어요 재조도있어요

그러나 그전의안해는 그것을 사나희들에게 금제를 당한지가 오래예요. 그러니까 하는수없이 개껄리드키 켄러다니며 사는게지요.”⁵⁶⁾

조리 있고 당당한 영란의 공격적인 말에 최는 자신이 가정내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각성하여 신가정의 이상적인 남편으로 돌아온다는 것으로 4회가 종료된다. 아내의 내면에 대한 치밀한 묘사에 비해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나, 5,6회의 서사의 단절 등 전반적으로 작품성이 떨어지지만, 당시 신가정의 부부문제에 대한 섬세한 포착과 문제의 제기, 아내를 주체적이고 이성적인 가정 관리자로 형상화한 점에서 앞서의 아내표제소설들의 시각과 다르다.

앞의 두 작품이 가정 내의 존재로서 주체적이고 현명한 아내의 모습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면, 채만식의 일련의 작품은 이혼 혹은 출분한 여성의 고통과 주체적인 삶의 형상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 준다. 채만식은 일찍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이 처녀작 「과도기」(1923)에서 다음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볼 것은 그 이혼을 한 여자가 자기 스스로 앞길을 열어가질 못하고 한평생 홀과수로 지내지 않으면 은근짜 집으로 팔려가거나 못된 놈의 첩이 되어 필경은 논두덕 죽음을 하게 되구..... 또 우리나라 사람이 여자의 정조에 대해서두 그런 종류의 여잘 ‘헌계집’이란 관념을 가지구 있으니까, 설혹 그 여자가 앞길을 열어 나가려구 해두 사회에선 그걸 용납해주질 않으니까.....⁵⁷⁾

동경유학생의 대화중에 나오는 이 대목은 강제 조혼한 아내를 버리고 동경으로 유학을 떠난 채만식 자신의 죄책감이 반영되어 있다. 사실 구여

56) 안석영, 「안해」, 『여성』 2권 2호, 1937.2.

57) 채만식, 「과도기」, 『채만식전집 5』, 창작사, 1987, 237쪽.

성을 버리고 신여성과 자유연애를 하는 일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채만식은 강제 조혼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여성들의 운명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작 「치숙」에서 이중의 풍자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자각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곧 샅바느질로 옥바라지를 하며 온갖 고생을 한 조강지처를 버리고 신여성과 살림을 차리는 아저씨의 비윤리적인 태도는 친일을 하여 자기 하나 잘 살아볼 욕심을 가진 ‘믿을 수 없는 화자’에게조차도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다. 이러한 자기 풍자는 본인을 향한 것으로서, 채만식은 글쓰기를 통해서나마 여성문제를 제대로 형상화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노력은 『인형의 집을 나와서』에서 좀 더 선명하고 본격적으로 작품화된다. 주인공 임노라가 변호사인 남편 현석준에게 실망을 느껴서 가출한 후 경제적 여경과 성적 시련을 겪지만, 주체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주변인을 통해 가정교사, 화장품 외판원, 여급을 거쳐 인쇄소 직공이 된다. 이 내용은 가정에서 노라의 삶은 주체적이지 못한 반면, 사회운동이라는 공공선을 위한 행위는 주체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것으로 읽어낼 수 있다. 채만식은 이 작품의 창작 동기를 쓰면서 부인해방은 단순히 출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소뿌르의 의식을 청산하고 진정한 해방의 길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문제 및 계급문제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이 의도는 채만식의 희곡 「감독의 아내」에서 더욱 강조된다.

이 희곡은 1931년 겨울, 경성을 무대배경으로 남편과 아내가 감독과 노동자의 대립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아내는 공장파업을 하고 남편은 그것을 막아야 하는 감독인데, 아내가 함께 파업을 하자고 남편을 설득하고 남편은 아내를 말리다가 부부싸움이 된다.

전: 무어야?(노려본다) 이년이 이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것이 회사덕인줄은 모르고 왜 꽤니 이 지랄이야 지랄이?

안해 : 흥 못척 고맙겠소. (방백) 어찌면 사람이 저러케 속이 없서!

전: (들은체 아니하고) 되지 못한 년놈들이 꽤니 (間) 같잔케 동맹이란 다
무어말러비트러진거야, 이 오랄 질놈년들아!

안해: 글세 그러니까 당신이나 어서가서 소같이 말같이 일이나 잘해주어요.
남의 참견은 그만두고.

전: 이년아 글세 너때문에 나까지 말을 들으니까말이야 이년아.

안해: (방백) 녀편네 없는 사람도 공장에만 잘 다녀먹더라!

전: (노려보다가) 그래도 냉큼 아니나오고 이러케 조동아리만 놀릴테냐?⁵⁸⁾

남편은 파업을 막지 못해 회사에서 폭력단에게 당하고, 집에 와서는 그 분풀이로 아내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며 서로 싸운다. 그 바람에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러 왔던 폭력단은 관찰만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정 밖에서 파업으로 벌어지는 폭력은 남편이 당하고,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폭력단의 폭력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게 된다. 곧 파업을 하는 여직공 아내가 당할 가정 밖의 폭력을 남편이 대신하여 막아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직장에서는 감독과 직공이지만, 가정 내에서는 남편과 아내로서 비교적 정상적인 소통과 다툼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검열에 걸려 삭제된 부분이 많아서 이 이상의 내용을 짐작하기는 어려우나, 당시 아내포제 서사와는 매우 다른 아내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⁵⁹⁾ 그간의 서사에서 형상화해온 아내들, 출분하여 노동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아내들을 괴롭혔을 폭력적 현실로부터 보호해주고자 하는 남편(작가)의 소망이 미약하게나마 나타나고 있으

58) 채만식, 「감독의 아내」, 『동광』 31호, 1932.3.

59) 유진월은 이 작품에 대해서 살림을 맡아서 하는 아내가 집안 살림을 부수는 폭력과 파괴행위나 집을 나가면서 어린 딸을 뿌리치는 장면 등 모성성을 부인하는 것 등은 여성의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급의식으로만 인물을 형상화한 남성작가의 한계라고 보고 있으나, 마르크스적 페미니즘의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진월, 「1930년대 프로그의 여성인물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6, 1996. 7.

며, 또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적극적이고 개성적인 한 인간이자, 남편의 폭력과 회유에도 당당하고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는 주체적인 아내를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다른 작가들과 분명한 차별성을 지닌다.

5. 해석의 사각지대, 아내의 자리

지금까지 살펴본 1930년대 남성작가의 아내표제소설에서 여성 억압적 제도와 현실로부터의 일탈을 꿈꾸는 아내는 결핍된 존재로서 열등한 타자이거나 위험한 욕망을 가진 나쁜 동반자로 주로 형상화되었다. 그런 부정적 이미지는 종속된 존재로서 '아내'의 자리를 짐작하게 한다.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 가정의 성역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며, 본능적인 욕망이 금지된 존재임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남성작가의 글쓰기에서 이런 재현내용에 대한 균열이나 충돌의 지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런 여성문제에 대한 회피와 지배영역의 공고화를 위한 은폐의 욕망조차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남편)의 시각에서 (남편을 화자로 하여) 기혼여성, 아내를 형상화한 일련의 작품들은, 아내를 통해 남편을,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하에서 빈곤한 남편의 무력하고 위축되고, 불안정한 상황을 그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내를 표제로 한 소설쓰기는 그 현실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남편들의 자기 방어 전략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런 문제는 당대 이념논쟁의 대리전으로 형상화된 작품에서나 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후 자기 고발과 성찰의 글쓰기를 보여준 작품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 어떤 정치적 이념도 여성문제의 본질적인 시각을 교정하는 데에 소홀했음을 반증한다.

일제에 의해 교묘하게 확산된 신가정 담론과 현모양처론은 지식여성의 자리를 더욱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신여성은 몇 중의 경쟁과

억압에 시달려야 했는데, 우선 신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가정의 천사’로서 교양 있고 능력 있는 양치상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하나였고,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자기실현의 욕망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도 문제였다. 또한 구여성 아내와의 경쟁과 불안한 위치에서 ‘제2부인’들은 도덕적 비난과 희생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그 결과 아내는 경제력은 물론, 스위트 홈을 이끌 신지식과 교양, 전통적인 부덕과 순종적인 내면까지를 고루 갖추어야 했다. 신구의 경쟁과 가부장적 가치의 내면화의 요구 속에서 양치의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진 것이다. 남성(남편)의 시선은 바로 이런 국면을 배려나 동조 없이 그리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무력한 남성들의 권위상실에 대한 우려와 자기연민에 빠진 채 허구적 서사로 위장하고 은폐하려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고민과 문제의식은 당시 소설가에게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이었지만, 불행하게도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의식적으로 이 문제를 꿰뚫어본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작품에 대한 남성비평가의 해석 역시 그러한 시각지대에서 반복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문제들은 비단 남성작가의 문제에서 그친 것은 아니었다. 남성적 글쓰기의 윤리를 내면화하여 문단활동을 시작한 초기 여성작가들의 경우에도 이런 현상은 유사하게 드러난다. 아내표제소설은 아니지만, 부부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강경애의 「원고료 이백 원」은 소설가와 화자 그리고 젠더적 시점에서 정반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앞의 작품들과 흥미로운 비교가 가능하다. 이 작품에서 ‘나’(아내)는 원고료의 사용 문제로 남편과 다투고 쫓겨난 후에 남편의 훈계와 지도에 교화되어 남편의 뜻에 따른다. 「원고료 이백 원」은 자전적 소설로 실제 아내이자 여성작가인 강경애가 남성(남편)의 시선을 의식하며 지도와 교정을 받아 성장하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아내를 그려낸 것이다. 즉, 이 작품의 표면은 여류작가인 ‘나’의 소시민성에 대해 남편이 계급적 지도를 하였다는 줄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 은폐되어 있는 성적 차별과 검열이 글쓰기의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⁶⁰⁾ 강경애의 하층민에 대

한 성공적인 소설화는 이렇게 가부장제를 내면화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내로서 아내를 형상화한 여성작가 역시 글쓰기에 대한 남성의 보이지 않는 검열에서 자유롭지 않았으며, 당대가 요구한 가부장적 질서의 내면화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대 현실에서도 글쓰기에서도 해석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성의 현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으며, 1930년대 근대 남성작가의 자의식 문제를 글쓰기 행위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남편에게 충고하고 반성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이고 현명한 아내를 등장시킨 안석영의 「안혜」나 자립적인 노동자로서 감독인 남편의 폭력과 회유에도 당당하고 꾀꾀하게 자기 길을 가는 주체적 여성을 형상화한 채만식의 희곡 「감독의 아내」는 문학적 형상성의 가치평가를 떠나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강경애, 이상경 편, 『강경애전집』, 소명출판, 1999.
 김남천, 「이런 안혜(혹은 이런 남편)」, 『농업조선』, 1939.4.
 김남천, 「처를 때리고」, 『소년행』, 학예사, 1939.
 김유정, 『김유정 단편선 - 동백꽃』, 문학과지성사, 2010.
 김동인, 『김동인단편전집 1』, 가람기획, 2006.

60) 강경애는 남편 장하일과 애정과 동지적 관계이기보다 정신적 주종관계에 있었고, 장하일은 단순한 독자이자 조연자라기보다는 글의 검열자이자 권위자였던 것이 아닌가 의심케 된다. 「원고료 이백원」을 자전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원고료로 다툼을 벌인 남편은 작가로서의 태도나 선택, 원고료 문제조차 간섭하고 폭력적 발언을 행사하는 장하일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진, 「식민 치하 하층민 여성의 글쓰기와 간도 : 강경애론」, 이상진·김신정·심원섭·한수영, 『한국근대작가론』, KNOU Press, 2015, 341~344쪽.

- 박노갑, 『박노갑소설집 - 40년』, 깊은샘, 1989.
 안석영, 『안해』, 『여성』, 1936.11~1937.4.
 이광수, 『이광수 전집 2』, 삼중당, 1976.
 이광수, 「혁명가의 아내와 모델」, 『신여성』, 1932.4.
 이기영, 「혁명가의 안해와 이광수」, 『신계단』, 1933.4.
 이기영, 『이기영 단편선 - 민촌』, 문학과지성사, 2006.
 채만식, 「감독의 아내」, 『동광』 31호, 1932.3.
 최승일, 「안해」, 『신여성』, 1924.6.
 염상섭, 「똥파리와 그의 아내」, 『신민』, 1929.1.

2. 단행본

-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50~54쪽.
 김유정학회 편, 『김유정과외의 만남』, 소명출판, 2012, 78쪽.
 김유정학회 편, 『김유정의 귀환』, 소명출판, 2011, 131~133쪽.
 김하명 외, 『조선문학사(1926-1945년)』,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366쪽.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 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314쪽.
 박형지·설혜심, 『제국주의와 남성성 - 19세기 영국의 젠더 형성』, 아카넷, 2004, 118~130쪽.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매체로 본 근대여성풍속사, 신여성』, 한겨레신문사, 2005, 218쪽.
 이상진, 『한국근대작가 12인의 초상』, 옛오늘, 2004, 65~67쪽.
 이상진·김신정·심원섭·한수영, 『한국근대작가론』, KNOU Press, 2015, 341~344쪽.
 이혜령, 『한국 근대소설과 섹슈얼리티의 서사학』, 소명출판, 2007, 19쪽.
 이혜령, 『한국소설과 골상학적 타자들』, 소명출판, 2007, 37~38쪽.
 조남현, 『그들의 문학과 생애 - 이기영』, 한길사, 114쪽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 R. W. 코넬, 안상옥 현민 역, 『남성성/들』, 이매진, 2013, 123~130쪽.
모리스 블랑쇼, 이달승 역, 『문학의 공간』, 그린비, 2011, 60~61쪽.
노오먼 프리이드먼, 「플롯의 제 형식」, 김병욱 편, 최상규 역, 『현대소설의 이론』, 대방출판사, 1984, 180~181쪽.

3. 논문

- 강지운, 「전향자와 그의 아내-룸펜 인텔리겐차와 자기반영의 문제들」, 『사이』 8호, 2010. 221~251쪽.
강현구, 「1920~30년대 모델소설의 새로운 독법과 매혹적인 악녀상」, 『한국문예비평연구』 16권, 2005, 7~32쪽.
김미영, 『1920년대 여성담론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3, 1~268쪽.
김미현, 「송고의 탈경계성」, 『한국문예비평연구』 38집, 2012. 8, 193~214쪽.
노지승, 「한국근대소설의 여성 표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5, 1~200쪽.
박정애, 「근대적 주체의 시선에 포착된 타자들」, 『여성문학연구』, 2001, 54~80쪽.
배효진, 「1920년대 전기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연구」, 세종대 박사논문. 2009, 9~224쪽.
소현숙, 「고독한 외침,-식민지 시기 아내/며느리에 대한 사형과 여성들의 법적 투쟁」, 『역사비평』, 2013.8, 387~411쪽.
소현숙, 「생존과 자존의 길 찾기 - 1920~30년대 여성 이혼과 빈곤문제」, 『여성문학연구』 32호, 2014, 75~113쪽.
신수정,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재현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3, 1~132쪽.
유진월, 「1930년대 프로극의 여성인물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6, 1996. 7, 9~34쪽.
이미립, 「이기영의 '여성해방' 소설연구」, 『여성문학연구』 6권, 2001, 135~

158쪽.

임선애, 「<혁명가의 아내>와 <변절자의 아내> , 『영남어문학』, 2002, 177~191쪽.

임정연, 「1920년대 연애담론연구 : 지식인의 식민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6, 1~214쪽.

임정연, 「근대 젠더담론과 ‘아내’라는 표상 , 『배달말』 45, 2009, 461~495쪽.

전미경, 「1920~30년대 현모양처에 관한 연구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권 3호, 2004, 75~93쪽.

전미경, 「1920-30년대 ‘남편’을 통해 본 가족의 변화 , 『한민족문화연구』 29, 2009, 405~438쪽.

정혜영, 「삶과 문학의 경계 - 김동인의 <무능자의 아내>를 중심으로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0집, 2006, 13~32쪽.

한민주, 「1930년대 후반기 전향소설에 나타난 남성 매저키즘의 의미-김남천과 한설야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0권, 2003, 276~299쪽.

Abstract

Anxious Subjects, Their Views and Writing

- Reading Wife-titled Novels of Male Writers in the 1930's

Lee, Sang-Jin

This thesis attempts to look at the writing ethics of some male writers of the 1930's by analyzing their wife-titled novels. Two things were discussed: first, what kind of critical understanding the male subject, as a writer, has regarding the suppressed reality of the female or wives at the time, and secondly, how much related is the reproduction of the women with the helpless masculinity as modern intellectual within the context of the capitalist patriarchy and the colonial society.

Yoo-jeong Kim reveals and evades the patriarchal tyranny by producing a caricature of foolish husband and wife. Dong-in Kim conceals the good-for-nothing husband's mistake with his wife's impulsive running away from home and her final corruption. In the works of Kwang-soo Lee and Ki-young Lee, wives are described both as the deputy of ideological disputes and as bad women causing defection and corruption. Nam-chun Kim intentionally misrepresents wives as imaginary opponents of the husbands immersed in self-hatred, thus the wives wear the masks of dangerous second wives. However two noteworthy accomplishments were also found: the first one is Seok-young Ahn's "Anhae", which presents a subjective and rational wife, and the second one is Man-sik Chae's drama which portrays an

independent woman, a self-reliant laborer, who firmly goes her own way in spite of the violence of the superintendent husband.

The wives in the male writers of the 1930's, as shown above, were mostly reproduced as dangerous evil companions or stupid deviant others. They were distorted and eliminated by the anxious male subjects/writers, and moreover they were left and ignored in a dead zone of interpretation as victims of self-defense in order to conceal the dark reality.

Key words : Wife, Husband, Wife-titled Novel, Masculinity, Capitalist Patriarchy, Modern Woman, Running Away from Home, The Second Wife, Conversion Novel, Roman à clef

■ 본 논문은 2016년 3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4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